

名稱으로 본 毛織物の 發達

— 古代부터 高麗時代까지 —

光州大學校 文理大學 衣裳學科
 講師 朴 舜 智
 東國大學校 師範大學 家政教育學科
 教授 李 春 桂

目 次	
I. 緒 論	Ⅲ. 名稱으로 본 毛織物の 種類와 發達
Ⅱ. 古代 毛織物の 特性	Ⅳ. 結 論

I. 緒 論

韓國에서는 古代부터 各種 動物性纖維로 만든 毛織物을 製織하여 使用하였으며, 그 毛織物은 國內에서 衣料와 生活用品으로 使用된 外에 外國에 보내는 輸出品目으로도 많이 使用되어왔다. 그 毛織物들은 대단히 優秀하였으므로 그 毛織物을 輸入한 外國에서도 驚歎과 함께 選好되어졌던 사실들이 古文獻上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까지 毛織物에 관한 研究로 빠르게는 李如性的 『朝鮮服飾考』¹⁾에 다소 언급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研究로는 閔吉子の “古代 우리나라의 特産物”²⁾ · “朝鮮時代 皮, 毛物에 대한 研究”³⁾ · “韓國傳統纖維製品의 發掘 I”⁴⁾ ·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⁵⁾ 등에서 毛織物에 대한 研究發表를 찾아 볼 수 있다. 그 외에 필자의 “高麗時代의 織物研究”의 한 부분으로서 高麗時代의 毛織物의 名稱을 정리한 바가 있다.⁶⁾

本 研究는 高麗時代의 織物研究의 毛織物 名稱 정리에 이어서 毛織物 研究의 기초적 作業으로서 名稱 古文獻에 記述되어 있는 毛織物에 관한 資料와 기타의 報告資料를 蒐集·整理하여 毛織物의 名稱을 통하여 그 特性和 毛織物의 製織過程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 文獻으로는 우리나라와 中國의 古文獻과 그간 韓國과 中國 日本에서 일구워진 研究書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들 文獻에 記述되어 있는 毛織物에 관한 諸般事項을 정리하여 韓國에 있어서 古代로 부터 高麗時代까지 毛織物 製織狀況과 그의 使用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本考의 研究範圍는 文獻上 毛織物에 관한 記錄이 나타나는 時期(약 4,000년 前)로부터 高麗時代까지로 한다. 研究方法은 각 毛織物 종류에 따른 내용을 時代別로 파악할 수 있는 縱的인 方法으로 考察하며 文獻의 調查方法에 의한다.

1) 李如星, 『朝鮮服飾考』, 白楊堂, 1947.

2) 閔吉子, “古代 우리나라의 特産織物”

『第三回 亞細亞服飾學術會議』, 第3號, 韓國服飾學會, 1984, pp.4~9.

3) 閔吉子, “朝鮮時代의 皮, 毛物에 대한 研究”, 『教育論叢』, 第11輯, 國民大學校教育研究所, 1991, pp. 115~137.

4) 閔吉子, “韓國傳統纖維製品의 發掘 I - 毛製品(Carpet, Rug)을 중심으로 -” 『服飾』, 第18號, 韓國服飾學會, 1992, pp.21~34.

5) 閔吉子 外 4人,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織物工藝篇,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1.

6) 朴舜智, “高麗時代의 織物研究”, 國民大學校 碩士學位請求論文, 1986, pp.13, 26~27.

II. 古代毛織物の特性

毛織物이란 대체로 毛纖維를 紡績하고 製織한 織物과 그 縮絨性を 利用하여 펠트화하여 만든 製品을 포함한다. 古代로부터의 우리나라 文獻들을 통하여 볼 때 罽·褐·氈·氍毹·氍毹·毳 등의 毛物에 관련된 名稱에 관한 記錄이 나타나 있다. 그 織物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本國의 記錄은 별로 없으나 中國측의 記錄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 韓國 古代의 毛織物에 대한 실상이 파악되고 있다.

毛物에 사용된 材料는 羊·駱駝·兔·熊·熊·狐·狸·駝·蠶蠶牛·馬 등의 毛와 皮를 사용하였다. 毛織物 名稱은 材料에 따른 區分 보다는 彩色과 紋樣 등의 製織方法이나 精粗에 의한 區分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古文獻上에 나타나는 毛織物の 名稱에는 罽·氈·褐·氍毹·氍毹·毛席·毛褥·毛毯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특징은 文獻記錄을 통하여 毛織物の 品質等級을 알 수 있다. 罽는 화려한 錦으로 製織되기도 하였으며 西域의 王 및 貴族이 많이 사용한 高級織物이다. 氈은 『集韻』⁷⁾에서 「細罽也」라 하여 확실한 製織樣式이 나타나지 않으나 양질의 毛素材로 製造된 毛製品임이 나타난다. 그러나 오늘날 밝혀진 바로는 罽가 製織布인데 반하여 氈은 不織布로 그 製作方法의 差異가 있다. 褐은 中國에서 賤者服으로 나타나 있으나 그 品質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中國인들이 毛織物을 기피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며 毛織物에 대한 中國인들의 一般名이 되어 있다. 毳는 『天工開物』⁸⁾에서 「若最粗而爲毳」의 記錄을 통하여 毛織物中 最下等品임이 나타나 있으나 오늘날 carpet에서도 品質이 낮은 carpet wool로 製織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通俗文』⁹⁾에 氍毹이 氍毹보다 더 細한 毛織物임을 記錄하고 있으나 그것은 氍毹와 氍毹가 製織樣式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中國各地或의 小數民族에 있어서 同一種類的

毛織品일지라도 그 名稱이 다른 경우가 一般적이다. 毛毯을 氍毹(新疆一帶)·氍毹(西藏·青海一帶)이라 하기도 하고 毛席 혹은 毛褥(中原地區)이라 하기도 한다.⁹⁾ 이로서 氍毹·氍毹·毛席·毛褥·毛毯이 같은 絨개종류의 명명임이 나타나고 있다.

現存하는 最古 毛織物은 新疆羅布淖爾引雀河古遺址에서 발견된 裹屍毛布로 4천년 전의 것으로 추정된다.¹⁰⁾

以上과 같이 毛織物은 西域과 「毛의 道」 주변지역에서 古代로 부터 이미 一般적으로 使用된 것이 事實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되었다. 참고로 樂浪



〈그림 1〉 石岩里 212號墳出土帶狀罽와 撚紐材質
(羊毛 scale : 1cm)



〈그림 2〉 撚紐의 纖維側面(scale : 0.1mm)

7) 『集韻』卷9, 島 12.

8) 『天工開物』上卷, 3 染色.

9) 『中文大辭典』, 中國文化研究所, 1967, 毛部, p.350.

10) 高漢玉(主編), 『中國歷代織染繡圖錄』,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86, p.19.

漢墓出土屬(石岩里 212 號 墳出土帶狀屬)의 組織과 纖維側面은 그림 1, 2에 보이는 바와 같다.¹¹⁾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扶餘에서 高級 毛織物인 屬의 着用的 記錄¹²⁾이 있어 毛織物의 使用을 보여준다. 이 시기는 적어도 기원전 4세기 이상을 上廻한다.

毛織物의 種類에 따른 用途로 屬와 褐은 各種 服飾材料로 많이 使用되었다. 즉, 屬는 屏·鞘와 같은 物品에도 使用되었으며 또한 屬는 화려한 屬錦의 織成으로 製織되었으며 깔개로서의 敷物인 茵·褥 등으로 많이 使用되어졌다. 氈은 衣料로 裘·帽에 使用되었으며 席·褥 등의 깔개로, 帳·幕 등의 가리개 종류로 使用되어졌다. 氈氈와 氈氈·毯은 바닥깔개의 일종으로 보여진다.¹³⁾

『日本書紀』에 百濟에서 日本에 氈氈과 함께 駱駝一匹·驢一匹·羊二頭·白雉一隻을 보낸 記錄¹⁴⁾과 함께 『日本記略』에 殺羴羊二頭·白羊四頭·山羊四十一頭·鶩一隻을 日本에 보낸 記錄¹⁵⁾ 및 『買新羅物解』에는 新羅의 對日輸出品 中 花氈·緋氈이 名기되어 있어¹⁶⁾ 毛織物의 日本으로의 傳播를 보여준다.

新羅에서 毛織物의 使用은 많은 服飾·車輜·器用의 禁制를 통하여 具體的으로 나타나며 그 當時 工匠인 毛典¹⁷⁾에 의해 管轄되었다.

新羅國 製作의 氈은 현재 우리나라에 소장되지 못하고 日本 正倉院에 소장된¹⁸⁾ 것을 참고할 수 밖에 없는데 이 氈(色氈6號와 花氈1號)의 纖維側面들을 살펴보면 그림 3, 4와 같다.¹⁹⁾



〈그림3〉 色氈6號와 纖維側面(scale : 50 μ)

11) 布目順郎, 『纖維の考古學』, 染織と生活社, 1992, p.165.

12) 『晉書』 卷96, 列傳67, 東夷, 夫餘.

13) 〈表1〉참조

14)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7年 9月1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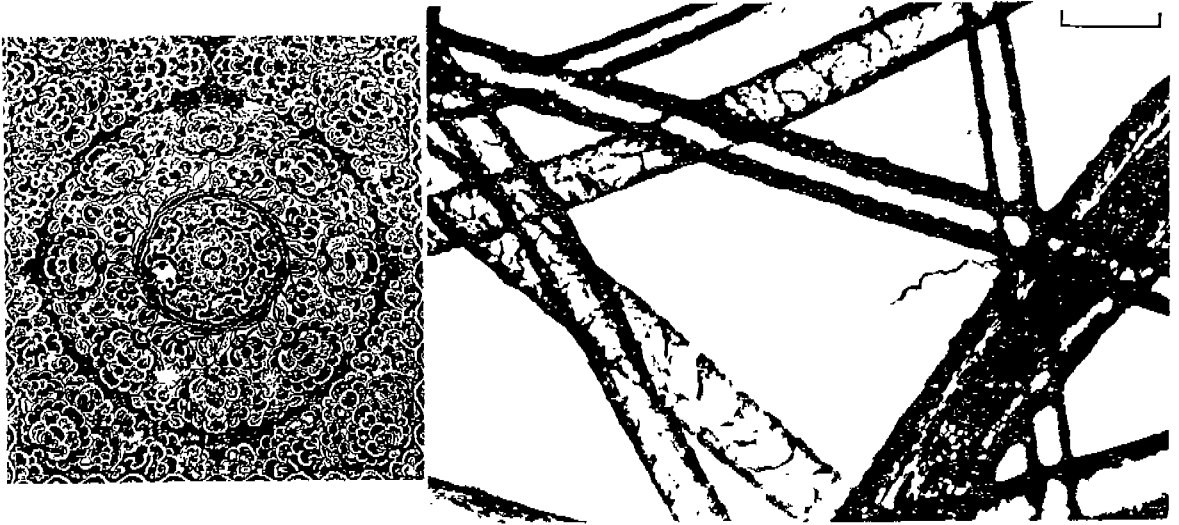
15) 孔錫鸞(譯), 『羊毛의 文化』, (山根章弘), 예원문화사, 1990, p.16.

16) 부함마드 칸수, 『新羅·西域文流史』, 檀國大學校出版部, 1992, p.234.

17) 『三國史記』 卷39, 雜志8, 職官.

18) 李春桂, “日本 正倉院 소장 服飾類와 新羅와의 관계 - 日本의 報告를 중심으로 -”, 『教育問題研究』 8, 東大教育問題研究所, 1993, p.13.

19) 布目順郎, 『纖維の考古學』 1992, p.171.



〈그림4〉花氈1號와 紫色纖維側面(scale 50 μ)

高麗時代に 毛織物은 特産物로서 極大로 發達 되었으며 특히 氈錦은 華麗한 織物로 中國에 많이 輸出되었다. 또한 中國과 日本·契丹·女眞·黑水靺鞨 그리고 西域과의 貿易을 通하여 各種 文物에 交流되는 가운데 毛織物도 그 影響을 받았음을 짐작케 한다. 高麗에 東女眞으로부터 黃毛一萬條가 보내어진 記錄²⁰⁾이 있으며 馳·駱駝·毛牛·羊 등이 輸入되는데 宣宗五年 遼에서 羊二千口²¹⁾, 毅宗8年 金에서 羊二千頭를 보내오고 蒙古에서 五百頭를 비롯하여 많은 羊이 流入되었으며 毅宗 때에는 金人을 雇用하여 牧畜을 하게한 記錄²⁴⁾으로 보아 高麗時代に 牧畜이 盛行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高麗時代に 그 羊을 사양하였던 곳이 오늘날 古考學의으로 밝혀졌음도 위의 記錄을 고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毛織物에 관련된 名稱에 따른 分類와 그 內容은 다음 章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Ⅲ. 毛織物의 種類와 發達

毛織物은 앞 章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遺品으로 전하여져 4,000年 前에 製織되고 使用되어 왔음을 알 수 있게 하며, 歷史의 흐름 속에서 여러 種類의 名稱으로 불리워졌고 發達되었다.

本章에서는 古文獻上에 나타난 毛織物에 관한 記錄을 蒐集하여 그 種類를 名稱別로 氈·褐·氈·氈氈(氈氈), 毳의 5가지로 整理하였으며, 이들 각각의 名稱의 特性과 用途를 알아보았다.

名稱에 따른 內容의 記述에 있어서 中國古文獻의 記錄을 中心으로 한 國外의 文獻記錄에 나타난 毛織物과 國內의 文獻記錄을 통해본 우리나라 毛織物을 區分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 國外의 記錄

『爾雅』²⁶⁾에 「毛氈所以爲氈」라 하였고 註에 이 르기를 「氈毛也氈胡人羊毛作衣」라 하여 氈는 毛

20) 『高麗史』卷12. 世家2, 肅宗8.

21) 『高麗史』卷10. 世家10, 宣宗5.

22) 『高麗史』卷18. 世家18, 毅宗8.

23) 『元史』卷208. 列傳95, 外夷一, 高麗.

24) 『高麗史』卷101. 列傳14.

25) 閔吉子 外 4人,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織物工藝篇,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1, p.55.

26) 『爾雅』卷2, 釋言.

織物이며 胡人は羊毛로 罽를 製織하여 衣服을 만들었음을 밝히고 있다. 『說文』²⁷⁾에 「罽西胡毳布也」라 記錄하여 西胡의 物品임을 알 수 있게 하는데 『扶南傳』²⁷⁾에서 「安息國出五色罽」라 記錄하였고 『三國志』에서의 記錄을 通하여 大秦國에서도 五色罽가 生産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書經』²⁹⁾의 記錄에 「梁州厥貢罽狐狸織皮 貢四獸之皮 織金罽」라 하여 織金罽가 獸毛를 소재로 하여 製織되었음이 나타난다. 『禮記』³⁰⁾에 「染絲而織之曰罽五色一市曰就」라 하여 先染된 絲로 罽가 製織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通俗文』³¹⁾에는 「織文曰罽 斜文曰氍」이라 하여 織物의 組織에 따른 罽와 氍과의 名稱이 區別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風俗通』³²⁾에 漢文帝의 戎服衣로 罽를 使用한 記錄이 있으며 『西京雜記』³³⁾에 漢制度에 天子가 겨울에 細罽로 裘을 만들었다는 記錄이 있다. 또한 『晉書』³⁴⁾ 輿服志에서는 皇太后·皇后가 廟見時에 紫罽·絳罽의 輦車를 使用했으며 夫人·公主 등도 紫絳罽·赤罽등을 使用한 記錄이 있다. 『唐書』³⁵⁾에 高昌二十七國에서 王服으로 錦罽의 使用記錄이 있다. 이로 볼 때 罽는 中國의 帝와 西域王의 衣服 및 囊·輦車等 物品에 使用되어진 五彩의 織紋으로 製織된 高級 毛織物임을 알 수 있게 한다.

B. 韓國의 記錄

우리나라에서의 罽에 관한 記錄 또한 여러 古文獻에 나타나고 있다.

『晉書』³⁶⁾에 「東夷夫餘國……出使乃衣錦罽以金

銀飾腰」라 하여 三國以前 上古時代에 扶餘에서는 錦罽로 된 衣服을 입고 金銀으로 허리를 裝飾한 記錄이 있어 高級織物로서의 錦罽의 使用을 알 수 있게 하며, 『宋史』³⁷⁾를 통해 高句麗에서 衣와 袴으로서의 罽의 使用記錄으로 보아 衣服뿐 아니라 갈개로서의 袴으로 罽가 使用되어 우리나라 毛織物의 使用年대가 長久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翰苑』³⁸⁾에서의 三韓에 대한 記錄에서는 「飾重綴珠不珍金罽之美」라 하고 있고 『後漢書』³⁹⁾와 『晉書』⁴⁰⁾의 馬韓에 대한 記錄에는 그 風俗이 金銀錦罽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므로 當時 毛織物에 관한 使用에 있어서 地域의 差異가 있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三國史記』⁴¹⁾의 色服條를 通하여서는 新羅時代 興德王代의 衣生活의 斷而을 알 수 있게 한다. 興德王 9年의 服飾禁制는 그 當時의 豪華롭고 奢侈한 生活을 統制하기 위하여 國法으로 頒布한 것이다. 원래 罽는 錦繡보다도 더 珍귀한 毛織衣料⁴²⁾로서 使用되었다. 이러한 罽의 服飾禁制品目을 살펴보면 眞骨大等이 表衣·半臂·袴를 眞骨女에게는 表衣·半臂·袴·內衣·襪·履·裘를 六頭品女와 五頭品女에게는 그 外에 袴·襪·短衣·表裳을 더하여 禁하고 있다. 이러한 服飾에서의 各品目에 대한 禁制는 上位骨品の 下位 禁制品目의 使用品目으로 생각하여 볼 때 罽의 상당한 常用을 알 수 있게 한다. 罽는 西域의 王族들이 使用한 記錄이 있고 이것이 中國에 알려진 高級織物로 統一新羅時代의 貴族階級 衣生活의 華麗한 一面을 보

27) 『太平御覽』卷816, 布帛部.

28) 『三國志』卷97, 列傳, 第67, 西戎.

29) 『書經』, 夏書, 禹貢篇.

30) 『禮記』, 典禮下.

31) 『中文大辭典』, 1967, 岡部, p.234.

32) 『風俗通』卷2, 燕太子丹 12.

33) 『西京雜記』卷1.

34) 『晉書』卷25, 志, 第15, 輿服.

35) 『唐書』卷221 上, 列傳, 第146上, 高昌.

36) 『晉書』卷 96, 列傳67, 東夷, 夫餘.

37) 『宋史』卷487, 列傳246, 外國3, 高麗.

38) 『翰苑』番夷部, 三韓.

39) 『後漢書』卷 65, 東夷列傳, 馬韓.

40) 『晉書』卷96, 列傳, 東夷, 馬韓.

41) 『三國史記』卷33, 雜志2, 色服.

42) 무함마드 간수, “韓國服飾과 西域服飾의 共通要素”. 『韓國服飾』第11, 檀國大學校 附屬 石宙善 紀念 民俗博物館, 1993. p.13.

여주고 있다. 또한 『三國史記』⁴³⁾에 나타나는 罽에 대한 車騎의 禁制品目으로 鞍鞵·鞍坐子·脊雜이 있으며 屋舍의 禁制品目으로 簾綠의 禁制가 記錄되어져 罽의 多方面의 生活用品으로서의 使用을 알 수 있게 한다.

高麗時代에는 三國時代보다 더 多様な 罽에 관한 記錄이 나타나는데 毛織物의 製織技術이 高度로 發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高麗時代의 罽에 관한 記錄은 主로 中國의 朝貢 輸出品目으로 많이 記錄되어 전하여지는데 元으로부터 緞子類를 輸入하고 毛織物과 紬를 輸出하였다.⁴⁴⁾

宋과 罽에 보내어진 記錄을 살펴보면 名種輸出品目 中 罽가 使用되어진 輸出品目으로 罽·黃罽·紅罽·金銀線織成黃盤龍罽·金塗銅龍裝金銀線織成黃盤龍罽·金鍍銀裝罽·紅地金銀五色線織成龍魚罽·銀罽를 비롯하여 織物 歷史上 가장 華麗한 錦技法을 使用하여 製織한 金銀線罽錦·罽錦·金銀裝罽錦·金銀線織成罽錦·紅地金銀五色線織成罽錦·紅地金銀五色線織成花鳥罽錦 등이 『高麗史』·『高麗史節要』·『東國通鑑』·『增補文獻備考』·『東史綱目』·『宋史』⁴⁵⁾ 등에 記錄되어 傳하여지고 있다. 先染된 毛絲 또는 絹絲와 毛絲의 交織으로 名種紋樣織物을 錦製織技法으로 製織한 罽錦은 金·銀·銅과 같은 金屬으로 線織成하여 雲·天·花·鳥·魚·龍 등의 紋樣을 넣는 豪華를 더하고 있다. 織成은 紋樣 織物의 한 織組方法을 指稱한다. 高麗時代에 새로이 나타나 있는 織物名이며 組織名이기도 하다.⁴⁶⁾ 본문에서의 織成은 組織名으로 볼 수 있다.

高麗時代의 罽와 罽錦에 관한 記錄을 통하여 볼 때 當時 毛織物을 製織하는 諸般技術이 상당한 水準에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데 高麗 惠宗 2年

罽에 보낸 貢物에 대한 勅의 內容에 「貝錦成章 檀華讓貴 咸陳筐篚 皆是珍奇」⁴⁷⁾라 하여 貝錦에 대한 敬탄을 하고 있어 當時의 罽, 罽錦을 비롯한 많은 織物이 中國人들에게 選好된 織物임을 端的으로 나타내 준다.

高麗時代에 職官⁴⁸⁾으로 掖庭院과 雜織署가 있었으며 이에 속한 錦匠에서 錦을 製織하였으니 罽의 紋樣織物도 일반적으로 製織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高麗時代에 文獻記錄上 나타나는 毛織物 罽의 用途로는 衣服·袍·衫·裙腰·褥·茵褥·倚背·大小鞵鞵·袷袋·屏·緊絲·駝車·蓋輿·器仗·弓袋裁·刀劔·銀星皮甲·鍊鐵兜蒸·鞞·押胯·鞍馬 등이 있어 衣服뿐 아니라 깔개와 요 그리고 각 수레와 채찍에 使用되어 罽가 多方面으로 많이 使用되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2. 褐

A. 國外的 記錄

『詩經』⁴⁹⁾에 「褐毛布也…褐皆織毛爲之賤者所服」이라 記錄하고 있어 褐이 中國에서는 중요한 衣服材料가 아니었음이 나타난다. 『天工開物』⁵⁰⁾에서도 唐末에 西域에서 傳來된 外毛인 羊의 毛로 賤者의 衣服을 위해 使用하였음을 또한 記錄하고 있다. 이집트에서 일찌기 毛를 사용하였으나 린넨과 綿을 고귀하게 여기고 毛를 천시한 것과 같이 中國에서도 絹에 중점을 두고 毛는 천시한 것이 나타난다. 夷族의 衣服材料라는 觀點에서 그러하였을 것 같기도 하다.

『唐國史補』⁵¹⁾에 宣州에서 兔毛의 褐이 生産된 記錄이 나타나며 『唐書』⁵²⁾ 地理志에 常州의 土貢物로 兔褐이 會州의 土貢物로 兔毛褐이 記錄되었

43) 『三國史記』卷33, 雜志2, 車騎·器用.

44) 『原色染織大辭典』淡交社, 1977, 日本, p.702.

45) <表1> 참조

46) 민길자, “韓國傳統織維製品의 發掘 I”, 『服飾』, 18號, 韓國服飾學會, 1992, p.24.

47) 『高麗史』卷2, 世家2, 惠宗2.

48) 『高麗史』卷80, 志3, 食貨.

49) 『詩經』, 國風篇, 邶風, 七月.

50) 『天工開物』上卷, 3 染色.

51) 『唐國史補』卷下.

52) 『唐書』卷41, 志31, 地理5·卷37, 志27, 地理1.

으며 粟州에서도 駝毛褐이 生産되어 褐의 材料로 羊毛·兔毛·駝毛 등의 使用과 함께 地域에 다른 材料의 差異가 있음을 보여준다. 『藝術傳』⁵³⁾에 「敦煌人也常衣麤褐」이라 記錄하고 있어 麤褐이 敦煌人의 常衣임을 나타내고 있다. 8세기의 印度와 西域에 관한 記錄인 『往五天竺國傳』⁵⁴⁾에 東吐蕃國도 褐과 毛褐을 衣服으로 使用하고 있는 것이 記錄되어 있다. 7세기전후의 印度와 西域에 관한 記錄인 『大唐西域記』⁵⁵⁾에서도 跋祿迦國·迦畢試國·屈浪拏國·鉢鐸創那國·呬摩坦羅國·活國·商彌國·烏緞國·佉沙國·羯盤陀國·達摩悉鐵帝國的 衣服으로 褐을 使用했고, 迦濕彌羅國의 衣服으로 毛褐을 使用했으며, 波刺斯國 즉 페르시아에서는 細褐을 훌륭히 製織하여 隣接國에서도 소중히 여겼다는 記錄이 傳하여지고 있다.

B. 韓國의 記錄

우리나라에서의 褐⁵⁶⁾에 관한 記錄으로 『唐書』⁵⁷⁾에 高句麗에서 庶人의 衣服으로 『舊唐書』⁵⁸⁾에 高句麗 國人の 衣服으로 記錄되어 있어 高句麗에서는 褐이 一般國人の 衣服으로 常用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毛織物이 一般化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高麗時代에 科擧合格者의 褐衣를 벗기고 王이 公服을 下賜한 記錄⁵⁹⁾과 함께 『高麗圖經』⁶⁰⁾에서 舟人의 衣服으로 短褐被의 記錄이 있어 高級毛織物인 罽와 구별되어져 褐은 下等의 毛織物로 보여진다. 『宋史』⁶¹⁾에서 高麗人들이 纏袍로서의 短褐

을 착용한 記錄이 있어 褐이 따뜻함을 위한 袍로 短衣로 만들어져 着用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3. 氈

A. 國外의 記錄

氈에 관한 外國의 記錄으로 『釋名』⁶²⁾에 「氈旃也 毛相著旃旃然也」라 하여 氈이 毛相을 쌓아만든 不織布임을 나타내고 있다. 『說文』⁶³⁾에서는 「糝糝毛 可以爲氈」이라 하여 糝糝毛의 氈이 있었음을 傳하고 있다. 『集韻』⁶⁴⁾에서는 「氈細罽也」라 하여 氈이 細罽로 나타나 있다. 『天工開物』⁶⁵⁾에 「凡綿羊剪糞粗者爲氈細者爲絨氈」이라 하여 綿羊의 粗毛로 氈을 細毛로 絨氈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周禮』⁶⁶⁾에서는 氈이 따뜻함을 위한 것이라고 記錄하고 있으며 『桂海器志』⁶⁷⁾에서는 蠻氈이 西南諸國에서 나며 貴賤의 구별없이 사람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記錄으로 보아 西南諸國에서는 生活의 必需品임을 나타내고 있다.

『南史』⁶⁸⁾에서 「西域渴盤陁國多牛馬駱駝羊 等出好氈」이라하여 西域의 渴盤陁國에서 좋은 氈이 牛·馬·駱駝·羊 등을 통해 많이 만들어짐을 記錄하고 있어 毛材料의 多樣性を 보여준다.

『風俗通』⁶⁹⁾에서 漢文帝의 戎服衣로 罽를 帽에 氈을 使用한 記錄이 있으며 8세기 印度와 西域에 관한 記錄인 『往五天竺國傳』⁷⁰⁾에서 東吐蕃國의 氈帳, 犯引國의 氈衫, 突厥의 氈衫·氈帳, 諸國의 氈衫의 記錄이 나타나며 7세기 전후의 記錄인

53) 『中文大辭典』, 1967. 衣部, p.240.

54) 慧超, 『往五天竺國傳』.

55) 玄奘, 『大唐西域記』 卷1·3·11·13.

56) 褐은 우리나라 記錄에 있어서 털옷 褐과 배옷 褐의 이중의 의미가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57) 『唐書』 卷220, 列傳145, 東夷, 高麗.

58) 『舊唐書』 卷199上, 列傳149上, 東夷, 高麗.

59) 『高麗史』 卷2, 世家2, 惠宗2.

60) 『高麗圖經』 卷19, 丹人服.

61) 『宋史』 卷487, 列傳246, 外國三, 高麗.

62) 『釋名』 卷4, 釋采帛 14.

63) 『中文大辭典』, 1967. 毛部, p.355.

64) 『集韻』 卷9, 葛12.

65) 『天工開物』 上卷, 3 染色.

66) 『周禮』 卷1, 天官, 冢宰上.

67) 『中文大辭典』, 1967. 毛部, p.355.

68) 『南史』 卷79, 列傳69, 西域.

69) 『風俗通』 卷2, 燕太子丹12.

70) 慧超, 『往五天竺國傳』.

『大唐西域記』⁷¹⁾에 跋祿迦國의 細糸로 만든 毛氈의 記錄과 함께 屈浪拏國·鉢鐸創那國·呬摩呬羅國·活國·商彌國·佉沙國·瞿薩旦那國·揭盤陀國·達摩悉鐵國에서의 氈의 着用과 細氈의 產出에 관하여 記錄하고 있다.

氈은 毛纖維에 있는 縮絨性を 利用하여 水分·熱氣·壓力·摩擦을 加하여 두꺼운 布相으로 만든 不織布인 펠트(felt)布로 그 紋樣은 色毛를 紋樣의 位置에 두고 布相으로 만들어 紋樣을 낸다.

氈은 草原에 遊牧하는 民族의 자연적인 발명품으로 天幕안에 가는 갈개의 일종으로서 使用되었는데 그 製作은 아시아의 乾燥地帶에 광범위하게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다.⁷²⁾

B. 韓國의 記錄

우리나라에서의 氈에 관한 記錄은 『三國史記』⁷³⁾ 車騎의 禁製品目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五頭品에게 「褥子只用氈若布」라 記錄하고 있어 褥에 氈과 布를 使用하도록 許容하고 있다. 그 外의 禁制는 보이지 않으나 五頭品에게의 許用은 다른 骨品에게의 許用으로 볼 수 있으며 氈은 新羅에서 車騎에 흔히 使用된 物品으로 擴大 解釋해 볼 수 있다.

正倉院에는 殘欠付箋에 「行卷韓舍價花氈一念物得進」라고 한 花紋의 毛氈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北倉의 紫色長方形 毛氈에도 「紫草娘宅紫稱毛一念物及綿乃得進」云綿一五斤長七尺廣三尺四寸이라고 墨書된 것이 있음이 알려져 있다.

麻布箋은 商品에 부착된 付札이며 行卷韓舍은 新羅人名과 제조한 곳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는데 新羅에는 毛氈을 제조·판매·交易하는 官廳인

官營公방 또는 宅이라고 하는 부유한 귀족·호족의 公방이 있었다고 한다. 신라의 氈은 唐나라에도 알려진 特產品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新羅의 織物文化가 日本의 織物文化에 끼친 영향은 대단하다.⁷⁴⁾

高麗時代에도 많은 文獻⁷⁵⁾에서 氈에 관한 記錄이 나타난다. 高麗 太祖5年 氈·毛氈이 契丹에서 보내어오고 또한 蒙古와의 戰爭에서 鹵獲하기도 하여 北方 遊牧民族의 氈이 流入되고 있다. 高麗에 그 當時 北方의 民族 中 來投하는 者가 많았으며 元의 成立으로 元과 交通하게 되므로 氈帳·氈幕·氈으로 裝飾한 車·靑氈席의 使用에 이르기까지 以前 新羅에서의 氈의 使用 以上으로 生活用品으로 使用되었으며 遊牧生活의 必需品이었던 氈幕 等의 生活風習까지 高麗에 流行하였다. 또한 氈은 幕·席의 生活用品뿐만 아니라 裘로도 使用되었음을 記錄⁷⁶⁾으로 찾아볼 수 있다.

『高麗史』⁷⁷⁾·『高麗史節要』⁷⁸⁾에 記錄되어진 女眞 氈工 6人의 高麗로 來投와 함께 高麗에서 그들에게 밭과 집을 주며 編戶에 編入시킴은 女眞의 氈工 技術者의 우리 民族으로의 同化로 이어지며 우리나라에서 傳來되어온 氈製作技術과 함께 北方民族의 氈製作技術의 流入을 意味한다 하겠다.

高麗時代에 氈製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그 技術 또는 發達되었다. 高麗 高宗年間에 崔怡가 五色氈으로 御輦을 덮어 奢侈를 極하게 하여 王에게 바친 記錄⁷⁹⁾은 華麗한 五色氈의 生産技術이 極도로 發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高麗時代는 罽와 氈과 같은 毛織物의 使用이 盛行했으며 그 製織·製作技術이 華麗하였고 最高度로 發達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71) 玄奘 『大唐西域記』, 卷1·12.

72) 西村兵部, 『日本の美術』, 織物, 12號, 至文堂, 1967, p.88.

73) 『三國史記』 卷33, 雜志2, 車騎.

74) 関吉子 外 4人,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1991, pp.37~38.

鈴木靖民,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日本, 東京), 1986. p.424.

75) <表1> 참조

76) 『高麗史』 卷 24, 世家24, 高宗40. 『增補文獻備考』 卷79·160.

77) 『高麗史』 卷11, 世家11, 肅宗6.

78) 『高麗史節要』 卷6.

79) 『高麗史』 卷129, 列傳·『高麗史節要』 卷16·『東國通鑑』 卷31.

4. 氍毹·氍毹

A. 國外的 記錄

『聲類』⁸⁰⁾에 「氍毹毛席也」라 하여 氍毹가 毛織物로 된 毛席의 一種임을 나타낸다. 『天工開物』⁸¹⁾에 「凡氍絨白黑爲本色其餘皆染色其氍毹氍毹等名稱皆華夷方語所命」이라 記錄하여 氍絨·氍毹·氍毹 등이 名稱만 다른 同一品目임을 나타내고 있다. 『通俗文』에서 「氍毹細者謂之氍毹」이라하여 氍毹는 氍毹보다 精粗에 있어서 細한 上品임을 나타낸다. 또한 同一品目임을 나타낸다.

『通俗文』에서 大突國에서의 10種色의 氍毹가 生産된 것이 記錄되어 多彩로운 氍毹의 存在를 보여준다.

『爾雅』⁸²⁾에서 氍毹를 衣馬에 使用한 記錄이 있고 『大唐西域記』⁸³⁾에 波刺斯國·佉沙國·瞿薩那國에서 氍毹를 生産하며 특히 페르시아를 말하는 波刺斯國에서는 氍毹를 工巧히 製織함을 記錄하고 있다. 『往五天竺國傳』⁸⁴⁾에서 犯引國·吐火羅國·胡國에 속한 安國·曹國·史國·石驪國·米國·康國에서의 氍의 記錄도 같은 同類로 보이는 것이다.

B. 韓國의 記錄

우리나라의 記錄⁸⁵⁾에 氍毹·速毹·五衫氍毹·氍毹·毹毹가 나타나는데 이는 外國의 記錄에 나타나는 氍毹·氍毹과 同一品으로 보고 있으며 오늘날 일반적인 카펫·러그의 제작양식상 이것은 타피스리 技法의 (kelim-Weaving, Tapeatry)로

서 製織되었다고 볼 수 있다.⁸⁶⁾

「毹毹」의 「毹」자는 그 音이 ‘渠鳩切’·‘渠尤切’으로 되어 있으며 漢籍에서 자주 찾아 볼 수 있는 ‘氍毹’는 物품의 ‘氍字’의 ‘巨俱切’과 거의 同一音이다. ……그리고 ‘毹’은 漢字 ‘毹’과 同意同音인 까닭에 毹毹는 漢籍에 ‘氍毹’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다.⁸⁷⁾ 毹毹는 氍毹보다 精粗에 있어서 細한 上品으로 同一品目으로 볼 수 있다. 氍毹의 어원은 아랍어의 단어 “Takht”는 “床”이나 “座床”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中國에 전래된 후 氍毹(毹毹)로 음사되었고 다시 “床”이나 “坐席”의 원의로부터 床이나 坐席위에 까는 깔개로 전의 된 것⁸⁸⁾으로 최근 研究發表되고 있다.

『三國史記』⁸⁹⁾에 나타나는 速毹는 新羅에서 器用禁製品目으로 五頭品·六頭品에 禁하고 있어 그 以上の 骨品에서의 自由로운 使用을 생각할 수 있다. 『三國遺事』⁹⁰⁾에 新羅 景德王代의 唐代宗에게 보낸 工藝品의 欸개로서 五色氍毹가 使用되었으며 代宗을 「新羅之巧天造非人巧也」라 하여 欸탄하게 하였다. 『朝鮮服飾考』⁹¹⁾에서는 五色의 氍毹를 毛의 褥이라 하였다. 또한 『杜陽雜編』⁹²⁾에서 唐에 보내어진 五衫氍毹의 工巧함이 美麗했다는 記錄을 통하여 볼 때 이 當時에 氍毹의 製作技術이 상당한 水準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氍毹의 記錄은 일찌기 百濟의 聖王이 日本의 欽明天皇에게 보낸 「好錦二匹·氍毹一領」의 記錄이 있는 『日本書紀』⁹³⁾를 통하여 毛織物의 日本傳播를 알려준다.

氍毹는 또한 「三國史記』⁹⁴⁾의 五頭品·六頭品의

80) 『中文大辭典』, 1967, 毛部, p.358.

81) 『天工開物』上卷, 3 染色.

82) 『爾雅』卷2, 釋言.

83) 玄奘, 『大唐西域記』卷11·12.

84) 慧超, 『往五天竺國傳』.

85) <表1> 참조

86) 민길자, “韓國傳統織維製品의 發掘 I”, 『服飾』18號, 韓國服飾學會, 1992. p.23.

87) 李龍範, “三國史記에 보이는 이슬람商人의 貿易品”, 李弘植 博士回甲記念 『韓國史論叢』, 新丘文化史, 1969. p.98.

88) 부함마드 간수, 『新羅·西域交通史』, 1992. p.254.

89) 『三國史記』卷33, 雜志2, 器用.

90) 『三國遺事』卷3, 萬佛山.

91) 李如星, 『朝鮮服飾考』, 白楊堂, 1947. p.301.

92) 『杜陽雜編』卷上.

93) 『日本書紀』卷19, 欽明天皇15年 12月.

94) 『三國史記』卷33, 雜志2, 器用.

〈表 1〉毛織物的名稱의 分類에 따른 關聯記錄

種 類	時 代	記 事	出 典	
罽	三 韓 夫 餘 高 句 麗 新 羅 高 麗	衣服·貢物·袴·鞞·屏·練袋子· 絮絲·服飾禁制(表衣·半臂·袴· 內衣·襪履·袂·袖·襜·襖· 內衣·襖·短衣)·車騎禁制(鞍 鞵·鞍坐子·脊雜)衣褥·屋舍禁制 (簾綠)	三國史記 卷33 冊府元龜 卷970 晉書 卷96 晉書 卷96 三國志 卷30 後漢書 卷65 高麗史 卷9·31 翰苑 蕃夷部 高麗圖經 卷23 東史綱目 卷7	
	黃罽	高 麗	衫·筒背·褥·貢物	高麗史 卷9
	紅罽		褥·筒背·貢物	高麗史 卷9
	赤罽		駟車使用·交易品	高麗史 卷8
	金銀線織成黃盤龍罽		褥·鞞輿裝飾	增補文獻備考 卷78
	銀罽		貢物·刀劍	增補文獻備考 卷172 宋史 卷487
	金鍍銀裝罽		貢物·器仗	高麗史 卷9
	紅地金銀五色線織成龍魚罽		貢物·弓袋裁	高麗史 卷2
	金塗銅龍裝金銀線織成黃盤龍罽		褥	高麗史 卷72
	罽錦	罽錦		貢物·銀星皮甲·鍊鐵兜鍪·鞍馬· 衣·褥
金銀裝罽錦			貢物·鞞	高麗史 卷2
金銀裝罽錦(鞞細縷雲天)			貢物·鞞	高麗史 卷2
金銀線罽錦			貢物·袍·褥	增補文獻備考 卷172 宋史 卷487
金銀線織成罽錦			貢物·茵褥	高麗史 卷7 高麗史節要 卷4 東國通鑑 卷11 東史綱目 卷7 增補文獻備考 卷80·160
紅地金銀五色線織成罽錦(卽尙金銀裝)			貢物·鞞	高麗史 卷2
紅地金銀五色線織成花鳥罽錦			貢物·捍膊·筒背·裙腰·鞞	高麗史 卷2
罽錦紅地金銀五色線織成花鳥罽錦			貢物·捍膊	高麗史 卷2
褐	褐	高 句 麗 高 麗	舟人服·衣·庶人衣·國人衣·袍	舊唐書 卷199上 唐書 卷220 宋史 卷487 高麗史 卷2 高麗圖經 卷19
	氈	新 羅 高 麗	褥·交易品·裘·車帳·車下·幕· 帽	三國史記 卷33 高麗史 卷1·22·35 ·89·101
氈	毛氈	高 麗	交易品	高麗史節要 卷1
	青氈		席	高麗史 卷2
	五色氈		御鞞	高麗史 卷129 高麗史節要 卷16
	氈工		女真人來投	高麗史 卷10 高麗史節要 卷6
	氈毼 毼氈	毼氈	新 羅	器用 禁制
五色毼氈			製造	三國遺事 卷3
五彩毼氈			交易品	杜陽雜編 卷上
毼氈			器用禁制	三國史記 卷33
毼氈		百 濟	交易品	日本書紀 卷19
毯	毯	高 麗		高麗史 卷98
	大唐毯	新 羅	器用禁制	三國史記 卷33
	彩毯	高 麗	席	三都賦
기타	黃毛	高 麗	交易品	高麗史 卷12

器用禁制를 통하여 그 以上 上等骨品の 氍毹에 대한 常用을 알 수 있게 한다.

5. 毯

A. 國外の 記録

『天工開物』⁹⁵⁾에 「若最粗而爲毯」이라하여 毯이 가장 粗惡한 毛織物임을 나타내어 준다. 『桂梅器志』⁹⁶⁾에 江州에서 毯이 生産됨을 記録하고 있으며 『往五天竺國傳』에서 迦羅國의 百姓이 毛毯으로 몸을 가릴뿐이라는 記録과 骨咄國에서의 毛毯之類의 生産을 記録하고 있다.

毯은 一種의 담요와 같은 毛織物로 가장 粗한 織物이다.

B. 韓國의 記録

新羅에서는 『三國史記』⁹⁸⁾의 禁制品目を 통하여 四頭品 以下에 禁하고 있어서 다른 毛織物과 比較하여 볼 때 下品임을 나타내고 있다.

高麗時代에 毯을 使用한 記録이 『高麗史』에 전하고 있다. 崔滋의 「三都賦」⁹⁹⁾에 公御들의 邸宅 가운데 있는 큰 樓閣의 기둥을 비단으로 싸고 彩毯으로 땅을 칸 記録을 傳하고 있어 高麗時代의 彩毯은 生活用品임을 알 수 있게 한다.

以上에서 記述한 內容을 이해의 편의를 고려하여 毛織物의 種類別 관련기록을 <表1>과 같이 정리하였다.

IV. 結 論

古代로 부터 古文獻上에 나타나는 우리나라 毛織物의 記録으로 그 種類를 罽·褐·氍·氍毹(氍毹)·毯으로 大別할 수 있다. 毛織物의 名稱은 衫色·紋樣 등의 製織·制作方法의 差異 또는 精粗

에 의한 差異로 이루어지고 있다. 精粗에 의한 差異는 氍·罽·褐·毯의 精細한 順으로 나타난다.

罽는 先染된 毛絲로 多彩로운 紋樣組織을 가진 華麗한 毛織物로 夫餘에서는 出使服으로 使用되었고, 新羅에서는 貴族의 各種衣料로 使用되었으며 車綺 및 器用으로 使用되었다. 高麗의 罽와 麗錦은 中國으로 보낸 輸出品目의 하나이다. 麗錦은 先染毛絲 또는 絹毛絲의 交織으로 錦製織技法을 使用하여 製織된 것이다. 또한 金·銀·銅과 같은 金屬絲로 線織成한 극도로 華麗한 名種紋樣織物로서 麗錦이 製織되었다.

褐은 下等의 毛織物로 高句麗에서 一般國人의 衣服으로 常用되었으며 高麗時代에도 舟人·一般庶人의 衣服材料로 使用되었다.

氍은 毛纖維를 축융하여 布拵으로 만든 不織布로 新羅 貴族들의 車輻에 常用되었다. 日本에 傳한 花氍이 正倉院에 現存하고 있으며 日本의 織物文化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高麗에서도 傳來된 氍製作技術이 크게 發達하였으며 華麗한 五色氍御鞞를 製作한 記録이 있다.

氍毹은 氍毹(氍毹)와 유사하면서 다소 精細한 毛織物이다. 新羅는 五彩氍毹·五色氍毹를 唐에 輸出하였으며 百濟는 日本에 氍毹을 보내기도 하였다.

毯은 갈개의 한 종류로 갈개 또는 오늘날의 담요 등에 해당하며 新羅·高麗時代의 生活用品이었다.

高麗時代에는 많은 羊이 遼·金·蒙古 등으로 부터 輸入되었으며 毅宗代에는 牧畜을 위해 企人을 雇用하였다.

以上과 같은 결과로서 韓國에서는 古代로 부터 高麗時代까지 中國과는 달리 毛織物이 대단히 중요한 織物의 한 종류로서 製織·使用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의 사용범위가 넓었고 그 品質이 우수하였음이 나타난다.

95) 『天工開物』, 上卷, 3 染色.

96) 『中文大辭典』, 1967. 毛部, p.348.

97) 慧超, 『往五天竺國傳』.

98) 『三國史記』 卷33, 雜志2, 器用.

99) 민길자, 韓國傳統織維製品의 發掘 I, 1992. p.24. 재인용.

ABSTRACT

A DEVELOPMENT OF WOOL FABRICS FOR NAME Korean Wool Fabrics From Ancient To Koryo -

There is a record that ancient Korean wool fabrics made from sheep, camel, rabbit, bear, horse, cattle, raccoon dog, fox and so on. Wool fiber fabrics were also reported Kye (罽), Gal (褐), Chum (氈 - felt), Tap Dung (氈氈), Kuyu (翟毛氈) and Ham (毯). These wool fabrics were named according to their fineness and weaving method of the fabric.

Technology of wool fabric weaving was developed and from Sam Kuk Dynasties (三國時代) to Koryo Dynasty (高麗時代) wool fabrics were reported to weave and trade to China, Japan and Arabia. These fabrics were mainly used as clothes, rugs or blankets. In Koryo Dynasty (高麗時代), especially Kye Kum (罽錦 - wool brocade) was used for trading goods to China. There is another record that two thousand sheep, camels offered Koryo by Yo (遼) and Kum Dynasty (金).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wool fabrics will be discussed from the literature survey of the relevant references.